

# 한우관리, 이젠 스마트폰으로...

### 곡성 장경운씨 한우개체관리 어플 개발 화제

### 분만·인공수정 등 현장체크 가능...농가 호평

곡성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장경운(35·사진)씨가 개발한 한우개체관리 어플(앱)인 '한우관리시스템'이 곡성군 축산농가 사이에서 화제다.

24일 곡성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0일 곡성축협 회의실에서 곡성 한우 특화대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우관리시스템'의 사용설명회를 갖고 시범 보급에 나섰다.

한우관리시스템은 기존의 개체관리 프로그램과 달리 어플의 형태로 컴퓨터로 자리를 옮겨 작업해야 하는 기록 관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농가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이 어플에는 일정관리, 분만관리, 발정관리, 인공수정에서 근친검사 외에도 다양한 개체관리 기능이 있어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관리시스템은 특이하게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농가가 직접 개발 하였다.

한우는 등급 간의 가격 격차가 커서 같은 체중의 소를 출하하고도 수익이 몇 배씩 차이가 나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개체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개체관리용 프로그램이 많이 보급돼 있지만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불



편함 때문에 외면 받아왔다.

곡성에서 부모와 함께 한우를 키우는 장씨는 "그동안 엑셀로 개체관리를 해왔는데 항상 컴퓨터로 와서 작업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며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다양한 어플이 출시되면서 한우개체관리 어플의 출시를 기대했으나 나오지 않아 직접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씨는 1년여에 걸친 개발 끝에 어플을 완성한후 6개월간의 안정성 테스트를 마치고 최근 보급에 나섰다. 어플은 시범 사용기간동안 홈페이지(Hanusus.com)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 섬진강 래프팅 체험 인기

'2013 섬진강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지난 21일 섬진강을 거슬러 오르고 있다. 섬진강이류생태관에서 지리산 피아골 입구까지 6Km 구간에서 열린 래프팅 체험행사에는 지난해보다 30% 많은 1700여명이 참가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kwangju.co.kr

## ■ 세 일 글

###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최선"

조 정 훈 고흥부군수



"38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고흥 발전에 전부 쏟아 부었습니다"

최근 취임한 조정훈 고흥 부군수(58)는 "고흥군의 균형 주요 시책인 투자유치,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농수산식품산업비전 5000, 참고흥 새마을 실천운동 등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군수는 광양 출신으로 1975년 광양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1990년 전남도청으로 옮겨 스포츠산업과장, 문화예술과

장,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는 등 행정수행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6년에는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인 정영임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으며 축구 등 스포츠에 남다른 소질이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u@

### 광양시 부시장 직급 상향

2년 연속 인구 15만명 유지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조정

인구 15만 명을 달성한 광양시(시장 이상용)의 부시장 직급이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광양시가 지난 19일자로 현 인연휴 부시장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하고 임명장을 교부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내 3급(지방부이사관) 부시장은 기존 3명(목포시, 여주시, 순천시)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광양시는 2011년 11월 9일 인구 15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12년 12월말까지 2년 연속 인구 15만 명을 유지함에 따라 지방자치법령에 의해 부시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됐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여수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세운다

시, 웅천공원에 설치...공적 담은 '기록벽' 등 조성

여수시가 항일독립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기념탑을 건립하는 보훈사업을 전개한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9억여 원을 들여 웅천동 웅천공원 일원에 17m 높이의 기념탑(조감도)을 설치하고 독립운동가 38인의 성명과 출생사망 연대, 공적 등을 담은 '기록벽'과 주변조경 등을 조성한다.

사업추진을 위해 시는 지난 2011년 5월 국가보훈처로부터 기념탑 건립사업에 대한 심의확정을 거쳐 지난해 4월 '기념탑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지난 2월 제안서 접수·평가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친 뒤 계약을 체결하고 3월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에는 전문가와 시의원, 기관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자문을 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26일 기념탑 부조·군상 모형 수정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기념탑 부조와 군상 제작에 나서 웅천공원 조성 진행상황에 따라 기초 및 설치공사를 추진한다. 시는 내년 3·1절에 맞춰 기념탑 준공식과 기념



### 기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에 대한 발굴사업에 발맞춰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부여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자라나는 청소년과 어린이 등 일반시민과 후손들에게 '산 교육의 장'으

로 활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5월 돌산읍 금성리에 주재년 열사 기념관을 건립한데 이어 지난 6월부터는 화양면 창무리에 있는 윤형숙 열사 묘역 정비공사를 진행중으로 9월 28일 순국일에 맞춰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여수=김형화기자 chkim@

## 전북



### 日 미쓰비시화학, 삼양사와 공동 투자

## 군산에 첨단 부품소재 공장 건설

5만2600여㎡서 연간 3만t 이온교환수지 생산

일본의 대표 기업인 미쓰비시화학이 국내기업인 삼양사와 손잡고 군산에 최첨단 부품소재 공장을 건설한다.

김원주 전북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와가 마사유키 미쓰비시화학 사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24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첨단 이온교환수지 부품 생산공장 건설(약 1500억원)'을 골자로 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미쓰비시 화학과 삼양사는 지분율

50%씩 공동 투자해 설립한 '삼양화이온테크놀로지'를 통해 군산자유무역지역 5만2600여㎡(약 1만6000평)에서 연간 3만t의 이온교환수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온교환수지는 인체에는 불순물을 걸러주는 신장이 있는 것처럼 화학, 바이오, 반도체 산업 등의 제품 생산 시 품질에 영향을 주는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반도체, LCD 생산은 물론 원

자력 발전용 수처리, 나아가 정밀화학 촉매로까지 그 용도가 확대되는 등 수요가 급증하는 신산업 소재다.

2015년 상반기에 이 공장이 완공되면 단일공장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이온교환수지 공장이 된다.

전북도는 부품소재 생산기술과 품질관리 수준면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두 회사가 투자를 결집함으로써 현재 전략적으로 추진중인 부품소재 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단신

### 정읍시, 시설원예농가 운반기 50대 지원

정읍시가 시설원예농가에 농작물 운반기 50기를 지원한다.

작물운반기 지원사업에는 모두 2500만원(보조 50%, 자부담 50%)이 투입된다. 정읍시는 정읍에 주소와 토지를 둔 시설하우스 2000㎡ 이상 원예작물 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수동식 작물운반기는 비닐하우스 상단에 철재파이프와 레일을 통해 운반기를 설치한 것으로 통로와 고랑이 좁은 단동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 호박, 오이, 고추 등의 작물수확과 운반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전주패밀리랜드 물놀이장 27일 개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각장 주변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전주패밀리랜드(063-236-8273)가 27일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8월 31까지 운영할 물놀이장은 최대 1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에 대비, 생활체육지도사·간호

사·안전요원 등 5명을 배치했다.

전주 패밀리랜드는 물놀이장 외에도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야외공연장, 테니스장, 풋살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의 체육시설을 갖췄다.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순창군, 소외계층 60세대 김치 등 전달

순창군자원봉사센터는 읍·면 재래시장을 순회하면서 관내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60세대에 배추김치와 부각을 전달하는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이번 나눔 활동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여름 장마철 김치담그기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비응은 재활동품 나눔장터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김영주 소장은 "매년 읍·면을 순회하면서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후원받은 물품으로 다문화가족과 소외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며 "재활동품 나눔장터에서 물건을 기증하고 구입해주신 주민들의 성원으로 이런 봉사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 고창군, 경북 고령군과 자매결연 맺어

고창군은 24일 경북 고령군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고창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군에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등 상호 친목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대가야 도읍지로서 문화유적이 다양한 고령군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이 인문·지리적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모범적인 자매결연 지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 파란하늘 아래 원추리꽃 만개

덕유산국립공원 중주탐방로에 있는 무룡산 일대에 여름철 대표 야생화인 원추리 꽃이 만개했다. 이곳은 원추리 집단군락지로 매년 7월 중순이면 산 능선이 황색 물결을 이룬다. /연합뉴스

덕유산국립공원 중주탐방로에 있는 무룡산 일대에 여름철 대표 야생화인 원추리 꽃이 만개했다. 이곳은 원추리 집단군락지로 매년 7월 중순이면 산 능선이 황색 물결을 이룬다. /연합뉴스